



지난 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법인 조인원 이사장과 각 구성원 대표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위해 법인은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은 구성원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김지원 기자 kiw990327@khu.ac.kr

지난 5일 법인 이사회 조인원 이사장과 구성원이 올해 처음으로 마주해 총장 선출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조 이사장은 이날 ‘법인은 이번 구성원 갈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총장 선임 여부는 구성원 간 합의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인-구성원 간담회의 주된 화두는 ‘현 구성원 갈등과 총장 선출제에 대한 법인의 입장’이었다. 조 이사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구성원 대표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조 이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위해 법인은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구성원 합의 사항을 대학 본부를 통해 전달받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속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이사회 이전까지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조 이사장이 ‘대학평의원

회(대평의) 총장선출규정(선출규정) 논란 해소를 위해선 법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구성원들의 주장에 대한 대답으로, 관련된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달 22일 긴급회의를 통해 ‘총장 선출제는 대평의가 아니라 범대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이와 관련한 법인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사장 면담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수의회 또한 지난달 20일 “법인이 2019학년도 1학기 중에 총장 선거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인의 적극적인 태도를 종용한 바 있다.

총장 선출제 마련 과정에 왜 대학 본부가 나서냐는 일부 구성원들의 의문도 제기됐다. 조 이사장은 “올해 구성원 단체 대표들이 임기 교체되었고, 해당 대표들의 의견 또한 참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은 이러한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 일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법인은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구성원 합의 사항은 대학본부를 통해 전달 받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은 “법인이 민주적인 총장 선출제 마련에 동의했음에도 자꾸만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구성원들끼리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 책임을 가진 법인이 이전과 같이 총장을 선임하도록 발미를 주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과 대학본부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기다리며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안을 제시해 구성원 합의를 종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적극적인 태도가 구성원 합의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 그리고 이사회 의결 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법인은 나서지 않겠다

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고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 세대와 그 미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수의회 강제식 의장은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학본부에 대한 법인의 업무 위임은 대평의 선출규정 제출 이후 교수의회가 줄곧 법인과 대학본부에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 바와 궤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법인이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에 미루어, 총장 선임 여부는 오직 구성원들의 의견 조율에 달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빠른 시일 내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며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과 아울러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총장상에 대한 고민 등을 통해 논의를 성숙하게 가꿔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사법’ 8월부터 본격 적용 우리학교 “원칙대로 시행”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열악했던 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학교 교무팀은 “강사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령과 매뉴얼에 맞춰 개편 및 검토 중에 있다”며 “특정한 기준을 세워 강사를 임용하거나 강의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가 마주한 문제를 비춰 봤을 때 강사법이 취지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우리학교는 시간강사를 대체하기 위한 전임, 겸임·초빙교수의 인원 및 시수 증가를 배제한 상태다. 겸임·초빙교수는 재임용 절차와 방학 중 임금, 교원 소청권 등을 보장하지 않아도 돼 대학 측이 부담이 덜기 위해 선택하는 방안이다. 교무팀은 “타 대학에서는 강사법 대응을 위해 겸임·초빙 교수로 대체한다고 하던데 우리학교는 정석대로 진행한다”며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임금 288억원을 오는 10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정예원 사무관은 “강사 고용변동 및 비종 등을 반영하여 방학 중 임금을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며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대학 입장에서 부담 정도가 달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교육부의 지원금 288억 원이 재정적인 부담을 완하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강사법 대책위원회 정복철(후마니타스칼리지) 위원장은 “전국에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288억 원을 나눠 1년에 1억에서 2억 원의 지

원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 완화 지원’이 강사법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 강사가 맡고 있는 강의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 강사법에 따라 시간강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권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2011년에서 2018년 동안 시간강사 수가 총 23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강사 18.7%p가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풀아 왔던 우리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학교 강사 강의료는 약 51,000원으로 7년 이상 동결된 상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는 “전임교원의 연봉은 매년 인상하면서 교수급 이하층의 시간강사를 강사료는 10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라며 “심지어 강사료는 사립대 평균치도 못 따라가는 곳이 경희대”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아무래도 등록금과 강사료가 연계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며 “12년째 등록금이 동결되었는데 입학금 등 수입이 위축되어서 강사료 인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확실한 공개채용 및 재임용 기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우리학교는 지금껏 강의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학기 위촉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재임용 절차 부문에 따르면 “재임용 심사에서 강의평가만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혀 있다. 이에 교무팀은 “임용계약 내용 및 재임용 기준에 대해 감사행정원과 논의 중이며 확정을 못 내린 상태”라며 “강사에 대한 규정 제정에 의견을 모아 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캠 마일리지 장학 신설 … 최대 200만원까지 수혜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국제】마일리지 장학이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 대상으로 이달 내 시행될 계획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운영 중인 적립식 장학 제도 ‘모자이크 장학’과 유사한 형태다. 올해 3월 이후 취득한 실적부터 인정되며,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학생 개인 계좌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 장학은 자격증, 어학능력 및 대내·외 활동 내역을 점수로 환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학 중 2번 신청 가능하며,

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적립은 재학 및 휴학 기간에 모두 가능하다. 정규학기 재학생 중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마일리지 환산기준은 1점당 1원이다. 따라서 10만 점부터 200만 점까지 적립된 점수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립 방법은 증빙서류를 학생지원센터 장학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학팀에서 해당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통해 마일리지 가 축적된다. 다만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교내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수상 등의 개인 특성 고려사항은 소속 단과대학이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 장학팀은 “적립식인 마일리지 장학은 서울캠 모자이크 장학과 유사하지만 포인트 기준이 더 높고 휴학생도 적립 가능하다”며 “마일리지 장학제도로 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며 동시에 장학금 획득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서울캠만 모자이크 장학을 운영해 국제캠 학생은 적립식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캠퍼스별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장

학 제도를 각각 자율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은 “우리학교는 서울캠에 인문사회계열, 국제캠에 이공계열이 밀집돼 있다”며 “서로 특성이 상이해 우정 장학 등의 공통 장학을 제외하고는 캠퍼스별로 장학 제도를 자율 운영한다”고 전했다.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마일리지 장학은 서울캠 모자이크 장학에 대응하는 학생 중심 장학제도”라며 “학우분들께서 취업이나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의욕과 보상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면안내

총학생회 공약 중간점검 >> 4면



〈경희대로〉



〈이름〉

※ 이번 호가 1학기 중간호입니다